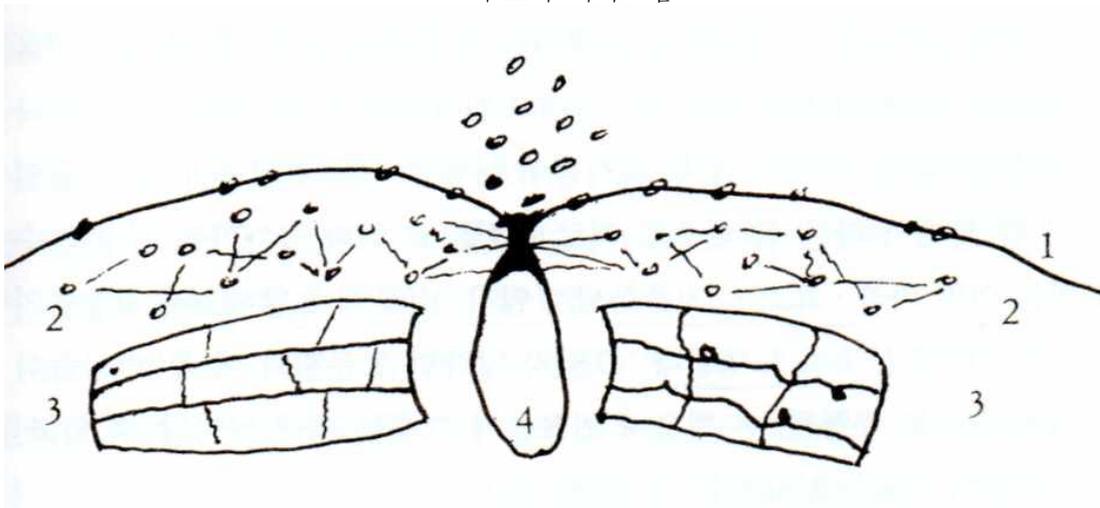


0. 푸코의 문제의식과 사유구도

(1) 푸코의 다이어그램

한편 위상학의 세 가지 심급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동시에 항상적인 상호 교환의 상태에 있다. 지층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고 말하게 만드는 층(層)들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러나 한편 바깥과의 관계는 기존의 힘들을 끊임없이 다시금 문제화하며 결국에는 자기와의 관계가 주체화의 새로운 양식들을 불러내고 생산하도록 만든다. 푸코의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사유의 의미를 변화시켰던 그러한 위대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되-뒀이도록 만든다.

푸코의 다이어그램



1. 바깥의 선 2. 전략적 지대 3. 지층들 4. 주름(주체화의 지대)

“나는 허구들 이외의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허구도 이렇게 많은 진리와 현실을 생산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푸코의 거대한 허구들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세계는 중첩된 표면들, 고문서들, 혹은 지층들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세계는 지식이다. 그러나 지층들은 한편으로는 시각적 그림들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각적 곡선들을 분리시키는 하나의 중심적 균열에 의해 횡단된다: 각 지층마다 존재하는 언표 가능한 것 및 가시적인 것, 즉 지식의 두 가지 환원 불가능한 형식들, ‘빛’과 ‘언어’, 가시성과 언표 가능성이 각각 위치하는 외재성의 이 거대한 두 가지 환경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이중적 운동 안에 포착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의 지층에서 또 다른 하나의 지층으로, 하나의 띠에서 또 다른 하나의 띠로 빠져 들어간다. 우리는 표면들, 그림들, 곡선들을 횡단한다. 우리는 세계의 어떤 안쪽에 도달하기 위하여 균열을 따라간다. 마치 멜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곳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며, 인간의 마음이 다만 거대하고 끔찍한 공허만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은 채 중심의 방을 찾으려 노력한다(누가 고문서들 안에서 삶을 찾으려 할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지식의 두 형식들이 어떻게 각각의 지층 위에서, 균열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서로 융합되고 얽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바깥·요소·‘지층화되지 않은 실체’에 도달하고자 지층들의 위로 기어오르고자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문서의 이 두 반쪽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언표들이 그림들 아래 나타날 수 있고, 그림들이 언표들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이 형식화되지 않은 바깥은 하나의 전투이다. 그것은 특이점들 및 그들 사이의 힘 관계들이 작용하는 소용들이·태풍 지대이다. 지층은 다만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이 전투의 시각적 면지와 음향적 반향을 모아 견고화될 뿐이다. 그러나 그 위의 특이성들은 형식을 갖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신체들 혹은 말하는 개인들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출현과 소멸(비사의 영역), 불확실한 이중성과 부분적 죽음의 영역 안으로 진입한다. 그것은 미시물리학의 영역이다. 포크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 위에서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두 마리의 나방 혹은 두 개의 깃털처럼 행동한다. 이 지대의 대기 상태 각각은 그 관계들 안에 포착된 하나의 특이성들 혹은 힘들의 다이어그램(전략)에 대응된다. 만약 지층들이 땅에 속하는 것이라면, 전략들은 하늘 혹은 대양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층 안에서 현실화는 전략에, 고문서 안에서의 현실화는 다이어그램에, 지층화 작용 자체는 지층화되지 않은 실체에 속해 있다. 현실화는 적분하는 동시에 미분한다. 비형식화된 힘 관계들은 특이성의 근방을 지나는 곡선 형식(언표) 및 특이성을 빛의 형상 안에 재배치하는 그림 형식(가시성)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형식의 창조를 통해 미분된다. 또한 힘 관계는 정확히 미분화의 두 측면들인 양자 사이의 형식적 관계 안에서 동시에 적분된다. 이는 힘 관계가-오직 그 아래에서만 자신이 시작되는-지층 내의 균열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힘 관계들은 지층 내에서 현실화됨으로써 균열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적분과 미분을 통해 양 방향에서 그것의 위쪽을 향해 치솟는 경향이 있다.

힘들은 언제나 ‘바깥’, 즉 어떤 외재성의 형식보다도 더 먼 하나의 바깥에서 온다. 마찬가지로 힘 관계 안에 포착된 특이성들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관계를 변형시키고 그것들을 전복시키며 또 불안정한 다이어그램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저항의 특이성들이 존재한다. 또한 심지어는 바깥의 선 자체 위에 존재하면서 아직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특히 균열의 바로 위에서 부글거리며 끓고 있는 야생적 특이성들마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이 태풍 자체 위에서 모든 다이어그램들을 휘젓는 그 무시무시한 선, 혹은 양끝이 열려 있는 ‘멜빌의 선’이다. 이 선은 어떤 배이든 자신의 어지러운 파도 안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선이며 자신이 무시무시한 뒤틀림으로 포효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인간을 삼켜 버리는 그러한 선이다. 혹은 그것은 분자적 속도로 증가하며 ‘천 개의 변이를 갖는’ ‘미쇼의 선’, ‘격렬히 마차를 모는 사람의 채찍질’이다. 그러나 이 선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더 이상 힘 관계에 따라 측정될 수 없으며 인간을 공포의 너머로 데려다 주는 생명의 선이다. 왜냐하면 균열의 장소 위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혹은 심지어 무엇보다도 ‘생명’ 자체인 태풍의 눈,”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선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가속화된 속력이 보다 긴 기간을 통해 ‘어떤 느린 존재’를 구성하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안쪽의 공간을 추적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면서도 언제나 바깥의 선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 하나의 송과선과도 같은 것이다. 가장 먼 것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전환됨으로써 내부가 된다 : 주름들 안의 삶.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자기를 들

여농음으로써 더 이상 그것이 비어 있으리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심의 방이다. 여기, 이 주체화의 지대 안에서 우리는 자기 속도의 주인, 상대적으로 자신의 분자들 및 특이성들의 주인이 된다 : 이것은 외부의 내부로서의 작은 배이다.

- 질 들뢰즈, 『푸코』 (허경 옮김, 동문선, 180~184쪽)에서

☞ **푸코의 세계의 구성과 전개 방식 : 운동하는 신체(주름들)들의 상호 작용의 방향운동**

1. **바깥의 선** : 세계의 생성과 소멸의 무수한 사건들의 흐름
2. **전략적 지대** : 세력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
3. **지층들** : 현재를 구성하는 역사적 현실태
4. **주름(주체화의 지대)** : 바깥 세계와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신체의 안쪽의 접힘과 그 운동의 궤적
5. **주체 = 외부의 내부로서의 작은 배** : 주름들 안의 삶. 주체화의 지대 안에서 우리는 자기 속도의 주인, 상대적으로 자신의 분자들 및 특이성들의 주인이 된다 : 이것은 외부의 내부로서의 작은 배이다. → 푸코에게 주체나 계급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세력관계들의 전략적 산물(사후적인 실천적 구성물)이다.

* **디아그램** : 구체적인 세력관계들의 역동적 총체인 공시적 구조. 추상기계.

(2) **푸코의 주체와 구조의 변증법**

18세기 이래, 혹은 하여튼 18세기 말 이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립되어 서로 포개진 두 개의 권력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율적인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신체에 집중되어 있고, 개체화의 효과들을 산출하며, 유용한 동시에 유순해야 할 힘들의 온상으로서 신체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가 아니라 생명에 집중되어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인구에 고유한 집단적 효과들을 재규합하고, 살아 있는 집단 속에서 산출될 수 있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 사건의 개연성을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여하튼 이로부터 나오는 효과들을 상쇄시키려 드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개별적 훈련[단련]이 아니라 전반적인 균형에 의해 항상성과 같은 어떤 것을, 즉 내적 위험에 대해 전체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훈련의 테크놀로지는 보험적 혹은 조절적 테크놀로지와 구별됩니다. 둘 모두 신체에 관한 테크놀로지이지만, 한쪽은 신체가 타고난 능력을 지닌 유기체로서 개체화되는 테크놀로지이며, 다른 한쪽은 신체가 전체의 생물학적 과정 속에 대체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권을 그 양상, 조직화 도식으로 지닌 권력이 인구 팽창과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신체를 규제하는 데에는 전혀 효험이 없게 되어버린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든 아래에서부터든, 세부의 수준에서든 집단의 수준에서든, 너무도 많은 것이 주권권력의 옛 기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세부를 바로잡기 위해 첫 번째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감시 및 훈련과 더불어, 개별 신체에 대한 권력메커니즘의 조정, 이것이 규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현하기에 가장 손쉽고 가장 편리한 조정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조정은 너무도 일찍, 즉 17~18세기 초에, 국지적인 수준에서, 직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세분된 형태로, 학교·병원·병영·작업실 등과 같은 제도의 제한된 틀 속에서 실현됐습니다. 그 뒤인 18세기 말에 전반적

현상들에 관해, 인구의 현상들에 관해, 인간의 집합의 생물학적 또는 생물-사회학적 과정과 더불어 두 번째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훨씬 어려운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조율이나 집중화 등의 복잡한 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신체-유기적-제도들의 계열, 그리고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 메커니즘-국가의 계열. [한편에는] 제도적인 유기체적 전체, 제도에 의한 유기적-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생물학적이고 국가적인 전체[총체], 즉 국가에 의한 생명-조절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제도 사이의 이런 대립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규율은 늘 그것이 취하는 제도적이고 국지적인 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규율기구인 동시에 국가기구이기도 한 몇몇 기구에서 규율은 손쉽게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규율이 반드시 늘 제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내내 확장됐던 이거대하고 포괄적인 조절은, 물론 국가적 수준에서 발견되지만, 국가적 수준의 하위에서도, 의학적 제도, 구호기금, 보험 등과 같은 국가의 하위 수준에 있는 일련의 제도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지적입니다.

다른 한편, 규율적인 것과 조절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의 전체는 똑같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둘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절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력의 규율메커니즘과 권력의 조절메커니즘, 신체에 대한 규율메커니즘과 인구에 대한 조절메커니즘은 서로 절합하고 있다고조차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의학은 신체와 동시에 인구를, 유기체와 동시에 생물학적 과정을 대상으로 삼은, 따라서 규율적 효과들과 조절적 효과들을 갖게 되는 얇-권력입니다.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규율적인 것에서 조절적인 것으로 순환하는 요소, 마찬가지로 신체와 인구에 적용되며, 신체의 규율적 차원을 통제하는 동시에 생물학적 다양체의 우발적 사건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순환하는 이 요소는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규범, 이것은 규율하고자 하는 신체에도, 조절하고자 하는 인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에서 규범화 사회란 규율적 제도들이 증식되어 마침내 모든 공간을 모조리 뒤덮어버린 일종의 일반화된 규율적 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규범화 사회라는 과념에 관한 초보적이고 불충분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범화 사회란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직각으로 절합되듯이 서로 교차된 사회입니다.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한다는 것, 적어도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을 떠맡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권력이 한편으로는 규율테크놀로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절테크놀로지의 이중적 작동에 의해 유기체적인 것에서 생물학적인 것까지, 신체에서 인구까지 모든 표면을 덮어버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신체와 생명을 떠맡은 권력, 또는 신체 쪽의 극과 인구 쪽의 극과 더불어 생명 일반을 떠맡은 권력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권력에서, 생명권력이 행사하는 극한에서 나타나는 역설들을 곧바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원자력적[원자폭탄적] 권력과 더불어 나타난 역설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 원자력적 권력 안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생명을 말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그 결과로 생명을 보증하는 권력으로서의 자기 자신도 말살되죠.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년』, 김상운 옮김, 난장, 2015, 298~303쪽)

☞ 푸코의 문제의식 : 주체와 구조의 변증법 [통치성-일정한 방향의 행위방식]

-전체사회의 구조적인 지도 : 주체와 구조의 역사적 전개 방식·형식

역사적 현실의 표면 : 부르주아적 법과 제도의 질서(공적 영역/거시적 권력·구조)

이면 : 규율권력의 작동방식(비감성적 구조; 일상생활영역의 모세혈관/미시적 권력·구조)↑↓

+ 주체화 양식 : 예속화 메커니즘/주체화메커니즘

-푸코의 권력 개념 : 권력을 억압의 기제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대립함

단순히 지배의 상태로 환원 불가능 + 사회구성체를 결정하는 전략적 놀이(사회적 행동들이나 행위양식들의 복합체)로서의 권력(니체적 관점) ; 권력은 늘 앞의 의지로 지식을 생산하면서 신체에 작용하는 생체권력이다.

; 생체권력 = 규율권력 + 생명권력 :

-규율권력의 메커니즘 = ㉠신체를 규범에 맞추어 표준화하여 신체의 능력을 최대화 ㉡권력에 순종하게 하기/예속화하기·복속화하기 : 권력의 종속적인 주체의 생산방식(주체의 저항은 자발적인 불복종, 성찰적인 비순종)

	규율권력	생명권력
계열화	신체-유기적-제도들의 계열/ 제도에 의한 유기적-규율.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 메커니즘-국가의 계열/국가에 의한 생명-조절.
역사적 시기	17~18세기 초에, 국지적인 수준에서, 직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세분된 형태로, 학교·병원·병영·작업실 등과 같은 제도의 제한된 틀 속에서 실현 현된 것으로 감시 및 훈련과 더불어, 개별 신체에 대한 권력메커니즘 의 조정이 신체의 규율이다.	18세기 말에, 인간의 집합의 생물학적 또는 생물-사회학적 과정과 현상에 대해 이루어진 두 번째 조정이 인구의 조절이 다(19세기에 더욱 강화됨).
수단과 대상	신체를 조작하는 규율적인 테크닉/ 신체가 타고난 능력을 지닌 유기체 로서 개체화되는 테크놀로지	생명을 통제하는 테크놀로지/ 신체가 전체의 생물학적 과정 속에 대체 되는 테크놀로지
효과/ 결과	개체화의 효과들을 산출한다.	인구에 고유한 집단적 효과들을 재규합 하고, 살아 있는 집단 속에서 산출될 수 있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제한다.
내용	신체에 대한 규율메커니즘	인구에 대한 조절메커니즘
공통점	규범화 사회 :	

(3) 주체의 형성사로서의 역사적 존재론

푸코는 『주체와 권력』(갈리마르, 1994, pp. 223)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철학적 작업의 핵심을 고백한다.

저는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제 작업의 목표가 무엇이었나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권력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문명 속에서 인간들이 주체화되어 가는 서로 다른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저는 인간을 주체로 변환시킨 세 가지의 객관화 과정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 우선 과학의 위상에 접근하려 했던 탐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의 둘째 부분은 주체의 객관화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즉 주체가 자기 자신 안에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분절되어 왔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주된 작업 목표였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인간들이 주체로 변화해 가는 방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연구의 방향을 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 연구의 주된 테마는 권력이 아니라, 주체의 문제입니다. (『문화와 아비투스』, 홍성민 지음, 나남, 83~84 재인용)

☛ **푸코의 철학적 작업 목표는 인간 주체화 양식의 탐구 : 권력현상 분석+주체화 양식추적**
⇒ 역사의 동력 = 권력관계의 작용 + 주체화 방식의 두 축

<역사적인 인간 주체화 양식 세 가지>

- ① **과학의 위상에 접근하려 했던 탐구의 방법들** : 지식의 고고학 및 지식의 계보학
- ② **주체의 객관화에 대한 연구** : 주체가 자기 자신 안에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분절되어 왔는가를 탐색하는 것
- ③ **인간들이 주체로 변화해 가는 방법을 추적하는 것** :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탐구하는 것. 『성의 역사』 2권, 3권의 목표. 자기에의 배려의 역사 곧 일상성을 만들고 통제해가는 기술들, 통치성의 형태는 무엇인가. 푸코의 사회적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결정된 세력관계(장기적인 사회변동의 상대적 결과물)로부터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의 ‘되접힘’, 재주름화이다. 따라서, 권력에의 예속화 방식과 주체화 양식은 동전의 양면이다.
 ⇒ **주체 형성의 역사** : 푸코의 ‘역사적 존재론’ - 주체를 문제화하는 작업
 ; 지식의 축, 권력의 축, 윤리의 축을 중심으로 지식의 대상, 권력의 대상, 윤리의 대상으로 구성되는 주체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4) 들뢰즈가 바라본, 푸코의 문제의식과 철학의 목표 435쪽

-이 글의 목표 : 푸코 철학에 파묻혀 있는 생성과 주체성 개념의 발굴
 푸코 철학의 궁극적 질문은 ‘사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사유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한 작업 속에서 푸코는 결코 이 질문 외에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았다(그가 하이데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역사적인 것, 푸코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층화된 모든 형성들, 즉 지층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사유하기란 띠들[지층들] 사이에서 또는 간격들 속에서 아직 지층화 되지 않은 그 어떤 질료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지층들 사이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유하기는 물론 역사와 본질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유하기는 차라리 니체가 반시대적인 것이라고 부른 것과, 즉 현재에 맞서서 과거를 사유하기와 더 가깝다.-물론 여기에다가 [니체의 다음 말] “바라건대 다가올 시간을 위하여”라는 말을 더하지 않을 경우, 이 말은 [잘못 이해되어] 공통의 어떤 장소, 향수, 회귀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말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역사적 형성들을 접으며 역사적 형성들을 통해 작동하지만, 그런

에도 불구하고 결코 역사적 형성들과 유사하지 않은 사유의 생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유하기는 외부로터 사유에 도래하며, 동시에 내부로부터, 지층들 아래에서, 지층들을 넘어서 발생한다. 푸코가 다음과 같이 물으면서 그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기 고유의 역사를 사유하는 작업이, 사유가 편안하게 무엇을 사유한다고 할 때의 바로 그 무엇에 대한 사유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더 나아가 사유로 하여금 다르게 사유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수단과 과정을 통해서인가.” 푸코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르게 사유하기”는 푸코 자신에게서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그렇지만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다음의 세 축을 따라서 푸코의 저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역사적 형성들로서의 지층들(고고학), [지층들을 넘어서] 저기로서의 외부(전략戰略), 기층基層으로서의 내부(계보학) (435~437쪽)

-지층(현재들 구성하고 있는 것) : 현재의 모습, 장치

① 역사적인 것 : 지층화된 것들(상징계)

② 사유하기 = 지층들 사이(실체계) + 비역사적인 것/반시대적인 것(유동적인 질료들)

= 현재에 맞서 과거를 사유하기 + 다가올 시대를 위해, 즉 미래를 위해 지층과 지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사건

→ 지층화를 연구해야 지층화되지 않은 사유에 도달 가능하다.

⇒ ∴ 사유하기 = 잠재성에 도달하기, 현재에 맞서 과거를 사유하기 + 미래를 위하여.

; 진정한 사유란 다르게 사유하기이다.

*푸코와 들뢰즈의 주름(pli) 철학의 연원 : 라이프니츠의 모나드(monad, 단자 ; 부분이 없는 단순한 실체 + 연장도 형태도 없는 지각작용체-비가시적인 잠재성-생성하는 것)는 그 안이 무한한 주름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복합체는 모나드의 집합체이다. 창문이 없는 단자 + 세계를 비추는 거울(빛과 어둠의 정도들) ; 신의 은총-예정조화라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지휘자.

1. 지층 또는 역사적 형성 :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지식) 437쪽

푸코 철학의 대상 : 역사적인 것,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것(칸트와의 차이점)

-지층화의 두 요소 : 가시성 + 언표 = (푸코가 말하는) 지식

㉠ 가시성 : 감옥 - 수용성

㉡ 언표 : 형법. 수감자 결정 - 자발성

두 항의 본성과 역사가 다르다. 두 항 중 언표의 우위, 두 항은 환원불가능한 이질성

예) 감옥의 장치 : 판옵티콘 = 가시성의 구조(빛, 보일 수 있음) + 보이지만 확인 불가능성 (비가시성)

판옵티콘(일망감시체제) - 권력장치의 작동 구조 ;

가시성의 구조(빛/봄-보임) = 볼 수 있음(가시성 속의 가시성 + 언표) + 보이지만 확인 불가능함(가시성 속의 비가시성 + 언표)

<지층(역사적 형성들)의 구조>

	표현(≠기표)	내용(≠기의)
개념	진술가능한 것	가시적인 것
형식	형법/정신의학	감옥/수용소
실체	범죄행위	감금된 자
	언어-말/말하기-독해장	기계-사물/보기-가시구역

*루이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 1899-1965)의 언어기호학(언리학, Glossemantics) :

기 호	표현	형식 : 음운론 영역 실체 : 음성학 영역
	+	
내용	형식 : 문법 영역 실체 : 의미론 영역	

→ 형식(form)-실체(실질, substance) : 언어의 내적 요소들의 기호기능에 따른 언어구조의 내적 체계가 초점. 무정형적인 실체들(질료들)을 조직화하는 형식

※ 언어학에서 표현과 내용의 관계에 관한 이론 :

- ㉠ 전통 언어이론 : 기호 = 기호의 바깥에 있는 어떤 지시대상(내용)에 대한 감각적이고 관념적인 것/재현(표현).
- ㉡ 소쉬르의 기호 = 기표(기호표현)와 기의(기호내용)의 내적인 결합(말소리와 사고내용)
- ㉢ 엘름슬레우의 기호 = '표현과 내용의 합성체'(각각 형식과 실체의 결합체) : 내용 없는 표현은 없다. 기호기능, 기능소들 간의 연대관계(의존) :

지층화의 두 요소를 이루는 내용[가시적인 것]의 형태들과 표현[진술 가능한 것]의 형태들에 대하여, 또는 비담론적 형성들과 담론적 형성들에 대하여 일반화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특별히 『지식의 고고학』에서였다. 이에 따르면 지층화되는 것은 지식을 구성한다. 즉 지층화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가르침과 문법에 대한 가르침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처럼 지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지층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고고학에 속하는 것이다. 고고학은 반드시 과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지층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를 이루는 지층들에 대한 고고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이루는 지층들에 대한] 우리 시대의 고고학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것이 되었던 과거의 것이 되었던 상관없이 고고학에서 가시적인 것은 언표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가시적인 것은 결코 현상학의 대상이 아니다. 가시적인 것은 [언표 가능한 것이 그런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식론의 대상이다. (438쪽)

고고학의 탐구 대상은 지층 = 지식(개념)이다.

① 지층의 두 요소 찾기 :

가시적인 것(가시성-비담론적 형성)과 언표 가능한 것/진술 가능한 것(언표)

② 지층 두 요소의 관계 탐구 : 비관계의 관계-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우연히 합쳐졌다. ㉠언표의 가시성에 대한 우위 ㉡가시성의 언표에로의 환원 불가능성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 두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되거나 일치된 것이다.

③ 고고학의 이중적 과제 :

㉠말과 랑그로부터 각 지층에 대응하는 언표들을 추출하기

㉔ 사물과 보는 것으로부터 가시성들을 추출하기 : “가시성은 대상의 형태가 아니다. 심지어 가시성은 빛과 사물의 접촉에서 드러나게 되는 형태도 아니다. 가시성은 빛 그 자체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리하여 사물이나 대상을 오로지 번득임, 번쩍거림, 섬광으로만 존속하도록 하는 빛남의 형태이다.”(439쪽)

→ 가시성과 언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시대적 조건, 즉 특정한 권력장치 때문이다. 가시성과 언표를 결합하거나 분리시키는 것은 권력의 전략이다. 권력의 작용은 빛을 좌우하는데, 곧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결정한다. 언어(광그)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권력작용이다. 요컨대, 권력 작용에 의해 빛과 언어의 배치가 좌우되는 것이다.

☞ **지층(= 고고학 : 시칭각적 고문서) =**

가시성의 이론(시선의 고고학) + 언표의 장 이론(언표의 고고학)

:

-언표 파악의 방법 : 언표는 결코 은폐되어 있지 않다. 언표의 독해 조건은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각 지층의 언어가 있다는 조건에서 언표를 추출해야 한다. 시대마다 언어의 특정한 존재 방식, 존재 양태를 파악해야 가능하다.

